

有道の 確立과 安의 意味

- 安心 · 安身の 安과 관련하여 -

高南植*

目 次	
I. 緒言	IV. 安의 意味
II. 天下皆病	1. 九天上帝에 대한 一心
III. 有道の 確立	2. 天倫에의 歸着
1. 有道	3. 相生大道의 實踐
2. 濟生	V. 結語

I. 緒言

인간이 종교를 신앙해 종교적 수행을 해나가는 것은 궁극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수행의 각종 법방과 일상생활속에서의 실천행위와 밀접히 연관된다.이점이 대순사상에 있어서는 綱領과 要諦로 짜여진 信條로 나타나고 있다.

信條는 四綱領과 三要諦로 구성되고 三要諦는 誠敬信으로 四綱領은 安心 安身 敬天 修道로 되어 있다.

信條는 대순진리회 도인들의 신앙생활의 條目이며 四綱領에 속하는 安心 安身은 無忠 無孝 無烈로인한 無道의 天下皆病 상황속에서 大病의 藥으로 典經에 기록돼 있다.

대병의 약인 安心 安신이 도인의 수행의 핵심인 四綱領으로 정해진 것은 人倫道德의 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수행에 있어 마음과 몸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의 상태를 어떻게 堅持할 것인가를 규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大病과 小病의 치유가 有道를 얻는데 있음도 典經에 나타난다. 이것은 대병의 약으로서 제시된 安심 安신에 있어 心의 귀착점과 身의 유래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本考의 주제와 본질적으로 관련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입각 本考는 천하개병의 상황을 설명하고 有道확립의 방법을 살핀 후 安심 安신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安의 意味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天下皆病

病에는 大勢로서의 大病과 小勢로서의 小病이 있으며 대병은 인간에게서 忠孝烈이 없어진 無道와 관련된 병이고 소병은 약으로 치유될 수 있는 육신의 병으로 볼 수 있다.

天下皆病의 원인은 다음에서 無忠 無孝 無烈에 의한 無道와 仁義의 不在에서 찾을 수 있다.

病에는 大勢가 있고 病에는 小勢가 있다. 大病에는 藥이 없으나 小病에는 藥이 있다. 大仁과 大義는 病이 없다. 世上에 忠이 없고 孝가 없고 烈이 없는 까닭으로 天下가 모두 病들었다. (病有大勢 病有小勢 大病無藥 小病 或有藥 大仁大義 無病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 天下皆病) (행록 5장 38절)

無道에 의해 천하개병이 되게된 원인은 우주와 인간의 양면에서 몇가지로 찾을 수 있다.

과학물질문명에 치우쳐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이 불균형 상태로 正陰 正陽이 아닌 先天 陰陽의 對對的 관계의 불균형하 常道の 紊亂이 원인이다.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교운 1장 9절)

또한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선천 相克으로 야기된 怨恨이 또한 病의 원인이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天下皆病은 先天 相克의 弊害속에 목은 하늘로 표현되는 선천 운행원리의 殺性和 그로인한 피해를 설명한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목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꺾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되느니라(공사 1장 11절)

사람을 죽이는 공사를 보았다는 목은 하늘에 대한 표현이 선천 상극 참혹상의 일면을 드러낸다. 또한 천지공사로 후천선경을 열고자하는 九天上帝의 살과 종도(박공우)의 살을 원하는 목은 하늘의 의도에서 목은 하늘의 살기와 잔인성을 볼 수 있다.(공사 3장 13절) 이러한 목은 하늘이 만든 의식 제도 관습이 천하를 재검과 비겁에 빠지게 했던 것이다.

선천 상극에 의한 是非의 실례는 선천에서 英雄時代 雄霸의 術로 나타났

다. 시속에 어린 학동에게 통감을 가르치는 풍습이 생겼나니 이것은 어릴 때부터 시비로써 성품을 기르려는 것이니 웅패의 술이로다. 어찌 합당하다 하리오.(교법 2장 25절)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다.(교법2-55)

또 상극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교법 3-34)와 같이 背師律의 下

天上이 일어났다. 이러한 선천의 현실속에서 원과 한이 삼계에 쌓이고 천하 개병의 형세가 전개된 것이다.

이밖에 신계 冥府의 錯亂이 세상의 병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나며 명부에 대한 九天上帝의 공사가 처결된다.(공사1장 5,7절)

또한 地氣가 통일되지않아 각종의 다양한 사상이 나타난 대립한 것이 인류 반목쟁투의 원인임을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공사 3장 5절)에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病은 개개인의 마음과 행실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개인의 도에 맞는 생활이 필요하다.

病自己而發과 葬死病衰旺冠帶浴生養胎胞의 글을 써서 각각 봉하신 후에 (예시 36절)

天地縱容之事도 自我由之하고 天地紛亂之事도 自我由之하나니 孔明之正大와 子房之縱容을 본 받으라.(교법 3장 29절)

민간층에서 질병의 원인이라 믿는 것은 신체에 의한 것보다는 신체 밖의 외적 신비력에 의한 것으로 믿는다. 민간층에서 질병의 원인이라 믿는 것을 간추려 보면 ①不淨에 의한 원인 ② 神,雜鬼,神秘力에 의한 원인 ③ 運數에 의한 원인 ④ 禁忌에 의한 원인⑤ 咀呪에 의한 원인 ⑥罪에 의한 원인으로 집약된다.(金泰坤.1994:295)

병이 발생한 것을 병들었다고 하며 완치된 것을 병이 나았다고 하는 바 이것은 병이 외부에서 체내에 들어 왔다가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다. 병의 발생이란 외부에서 악령의 침범이고 치료란 악령을 驅逐하는 것을 의미한다.(任東權,1991:291)

외부 악령의 침범은 『典經』에서 인간이 갖는 좋지못한 기운(殺氣)에 의해 병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어느해 여름 川原에 계실 때 참외를 올리는 자가 있었으나 상제께서 잡수시지 않고 그대로 두셨는데 공우가 사사로이 한개를 먹었더니 갑자기 설사가 나고 낫지 않느니라. 할 수 없이 상제께 사유를 고하니 가라사대

“그 아내가 주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가져 왔으므로 살기가 붙어있었는데 그 살기에 맞았도다” 하시고 “닭죽을 먹어라” 하시기에 공우가 명하신 대로 하였더니 곧 설사가 나았도다.(제생 39절)

또 개인의 허물과 윤리도덕적 잘못으로 극한 경우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상제께서 하루는 공우에게 마음속으로 六任을 정하라고 명하셨도다. 공우가 생각한 여섯 사람 중 한 사람이 불가하다 하시여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정하였더니 이 사람들을 부르사 불을 끄고 동학 주문을 외우게 하여 밤새도록 방안을 들게 하다가 불을 켜 보게 하시니 손씨가 죽은 듯이 엎어져 있느니라. 상제께서 “나를 부르라”고 그에게 이르니 그는 겨우 정신을 돌려 상제를 부르니 기운이 소생하니라. 상제께서 이 일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이는 허물을 지은 자니라. 이후에 괴병이 온 세상에 유행하리라.(예시 41절)

대저 부모가 정하여 준 배필은 인연이요. 저희끼리 작배한 것은 천연이라. 천연을 무시하여 인도를 패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벽력으로써 응징하였노라”고 하셨도다. 그 며느리는 벽력에 죽었노라고 전하는도다.(행록 3장 36절)

다음으로 前生 혹은 과거의 잘못이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게 된다.

상제께서 川原 장에서 예수교 사람과 다투다가 큰 돌에 맞아 가슴뼈가 상하여 수십일 동안 치료를 받으며 크게 고통하는 공우를 보시고 가라사대 “너도 전에 남의 가슴을 쳐서 사경에 이르게 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생각하여 뉘우치라. 또 네가 완패된 후에 가해자를 찾아가 죽이려고 생각하나 네가 전에 상해한 자가 이제 너에게 상해를 입힌 측에 붙어 갚는 것이니 오히려 그만하기 다행이라.(교법 3장 12절)

개인의 경위에 맞지않는 言動이 또한 病을 가져온다.

김형렬이 출타하였다가 집에 예수교 신자 金重九가 술이 만취되어 김형렬을 붙들고 혹독하게 능욕하는지라. 형렬이 심한 곤욕을 겪고 돌아와서 상제께 사실을 아뢰니 상제께서 형렬에게 “청수를 떠 놓고 네 허물을 살펴 뉘우치라.” 형렬이 명하신 대로 시행하였도다. 그후 김중구는 한때 병으로 인해서 사경에 헤매었다고 하느니라. 이 소식을 형렬로부터 들으시고 상제께서 다시 그에게 충고하시기를 “금후에는 그런 일이 있거든 상대방을 원망하기에 앞서 먼저 네 몸을 살피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만일 허물이 네게 있을 때에는 그 허물이 다 풀릴 것이오 허물이 네게 없을 때에는 그 독기가 본처로 돌아가리라” 하셨도다.(교법 2장 28절)

인간관계에서의不和도 병을 야기시킨다.

박순여가 왼쪽 다리에 부종이 생겨 다리가 큰 기둥과 같이 부어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므로 상제께 간청하니라. 상제께서 자현에게 “순여의 병을 다스려 살게 함이 옳으나, 또는 그대로 두어 죽게 함이 옳으나, 네 말 한마디에 달렸느니라”고 물으시기에 자현이 조금 주저하다가 “살려 주심이 옳을까 하나이다”고 대답하니 가라사대 “박순여는 불량한 사람이니라. 너에게 매우 무례하였으니 너와 함께 가서 치료하리라” 하시고 자현을 앞세우고 순여의 집에 가시니라. 상제께서 손수 부운 다리를 주물러내리시며 백탕 한 그릇을 마시게 하시는데도다. 원래 순여는 나이가 자현보다 많다하여 항상 자현을 무례하게 대하여 왔느니라. 자현은 입밖에 내지 않으나 속으로 불쾌하게 여기고 있기에 상제께서 이것을 아시고 자현에게 물으신 것 이었도다. 순여는 그 후에 부기가 내려 걸어다니게 되었도다.(제생 26절)

또한 병은 괴질신장의 작용과 관계된다.

이 무렵에 괴질이 淸州와 羅州에 창궐하여 인심이 흉흉한지라. 상제께서 “남북으로 마주 터지니 장차 무수한 생명이 잔멸하리로다”고 말씀하시고 글을 써서 괴질 신장에게 “胡不犯帝王將相之家 犯此無辜蒼生之家乎”라 칙령하시고 “내가 이것을 대속하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새 옷 다섯 벌을 급히 지어오게 하시니라. 가져온 옷으로 상제께서 설사하시면서 다섯번 갈아입고 “약한 자는 다 죽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이후부터 그 괴질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없어졌도다. (제생 23절)

병은 위와같은 원인들로부터 일어나는 경우외에 향후에는 어느 시점에서 급살병이라는 병겁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부녀자들이 제 자식이라도 비위에 맞지 아니하면 급살맞으라고 폭언하니 이것은 장차 급살병이 있을 것을 말한이니라. 하루 짚신 세켄레를 닿기면서 죽음을 밟아 병자를 구하러 다니리니(예시43절)

상제께서 앞날을 위하여 종도들을 격려하여 이르시니라. “바둑에서 한수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여두라. 이제 비록 張良 諸葛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부터 水旱과 난리의 겁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법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 두

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겁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 오듯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공사 1장 36절)

Ⅲ. 有道の 確立

1. 有道세계

天下皆病의 형세속에서 有道を 얻으면 無道로 일어난 大病과 小病에 모두 效果가 있음을 알 수있다.

대병도 무도에서나오고 소병도 무도에서 나온다.有道を 얻으면 대병에 약을 쓰지않아도 자연스럽게 효과가 있고 소병도 약을 쓰지 않아도 자연히 효과가 있다.(大病 出於無道 小病 出於無道 得其有道 則大病 勿藥 自效 小病 勿藥自效)(행록 5장 38절)

有도는 正道에 맞고 덕행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기존 先天의 儒佛仙의 법술을 포함 모든 법을 함해쓰는 상황하의 것이고 그것은 神道로 귀결된다.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道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습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예시 13절)

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드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지나간 임진란을 崔風憲이 말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震默이 당하였으면 석달이 넘지 않고, 宋龜峰이 말았으면 여덟달에 평안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 불, 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함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예시73절)

천하의 병을 고치기위한 天地公事가 근본적 토대로 삼고 있는 神道¹⁾는 다

1) 神과 神道에 대해 神謂事理玄妙, 神奇. 易繫辭上: “陰陽不測之謂神.”注: “神也者, 變化之極, 妙萬物而爲言, 不可形言者也.< 「辭源」 1231쪽 > 神道: (易, 觀) 觀天之神道, 而四時不忒, 聖人以神道設教, 而天下服矣. (疏) 神道者, 微妙無方, 理不可知. 目不可

음의 세가지 면에서 근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첫째 신성 불 보살들의 하소연으로 九天上帝는 삼계를 大巡했고 삼계 혼란의 요인이 서양 과학물질문명이 물질에 치우쳐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천리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면에서 모든 죄악을 저질러 神道の 권위를 떨어뜨린 것에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신도의 권위 회복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高南植.1992:238)

둘째로 相克과 冤으로 생긴 선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삼계공사이며 삼계공사의 근본원리가 神道에 있다.(공사 1장 3절)

셋째 천하일가의 형세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유불선 도법에 의해 다양하고 복잡한 미래세계를 대응해 우주적 질서를 세울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九天上帝는 유불선 법술의 한계상황을 극복해 제생의세와 화민정세 할 수 있는 원리가 玄妙不則한 공을 이루는 신도의 無爲而化작용에 있음을 밝혔다.(高南植.1998:17-19)

위와같은 세가지 면에서 有道를 이루는 神道는 선천의 천하개병의 해결과 후천선경 건설을 이루고자 있었던 天地公事의 근본 原理로 작용했다.

그리고 神道공사는 원한을 풀고 죽은 신명들의 원한을 제거해 줌으로써 신명계의 평화와 그에 따른 인간계의 평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解冤公事> 와, 신명계에서 갈등을 나타내는 신명들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들을 새롭게 배치하는 <신명의 배치> 그리고 각 지방과 민족 및 문명에 따라 서로 이질성을 나타내는 신명들을 통일시키는 <통일신단의 구성> 등을 포함한다.(盧吉明.1994 改正增補版:433,435)

위와같은 神界와 人界의 질서를 포함하는 神道는 神(神明)의 道로서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교법 3-2), 『天地, 日月, 星辰등을 각각 魍魎, 寵王, 七星의 神이 主張한다』(교운1-44)는 내용처럼 神界만이 아니라 天界, 地界, 人界로 구분되는 삼계와 有機的 關係이다.

見,不知所以然,謂之神道<『大漢和辭典』卷 8, 455쪽>라고 나와 있다.

이것은 <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예시 73절) 라고 밝힌 부분에서의 神道와 神 事理玄妙, 神道者 微妙無方과 의미적으로 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九天上帝가 신계 기구인 명부착란이 온 세상 착란이라하고 명부를 바로 잡아 세상의 착란을 해결하고자 한 것은 천지공사의 근본적 원리를 나타낸 것으로 명부에서의 질서 즉 신계의 도,신도가 바르게 되는 것이 인계문제 해결의 始原이 됨을 보인 것이다.

먼저 天地公事가 天地人 三界를 度數에 따라 원리적으로 통제해 기존 선천의 문제들을 해결해 우주를 구원하고 後天仙境을 만드는 것으로(공사 1-3) 九天上帝가 단행한 다양한 천지공사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적 공통점은 신계 神들과 함께 天地公事가 단행되었다는 점이다.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 (교운 1장 19절)

상제께서 계묘년 정월에 날마다 백지 두 서너장에 글을 쓰거나 또는 그림(符)을 그려 손이나 무우에 먹물을 묻혀 그것들에 찍고 불사르셨도다. 그 뜻을 종도들이 여쭙어 물으니 “그것은 천지공사에 신명을 부르는 부호이니라”고 알려주셨도다.(공사 1장 10절)

또 道通眞境의 後天 天下一家에서 모든 통일된 문화의 구현을 이루는 천지공사가 九天上帝의 천지공사는 神道の 원리하에 道通神, 文明神, 冥府 主張神등 신계 중추적 위치의 神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원리이며, 본래 常道로 있었던 신도의 권위추락(교운1-9)을 解冤으로 회복시켜(공사1-3) 후천의 신계질서로 조정해 새로운 도수에 따라 平天下하는 것이다.

나아가 삼계와 신의 관련성은 그 자체가 질서가 되고 이 질서에 의해 선천문제의 해결과 후천선경 건설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삼계에 有道を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요체가 된다.

天地人 三界는 각각의 특성대로 존재하여 天地는 人에게 善惡의 행사와 氣的인 작용을 나타내며, 人世의 仙佛儒의 法術을 만든다.

다음으로 神과 天地人 三界 관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神의 天界와의 관련은 天上에 玉京, 玉樞, 冥府등의 기구가 존재하고 이곳에서 神政과 神事가 이루어진다.(교운 2-41,공사 1-5,행록 3-8)

한편 神과 地界와의 연관은 지계의 신들이 지역의 지방신이나 『天下自己神 古阜運回, 天下陰陽神 全州運回, 天下道通神 井邑運回, 天下是非神 淳昌

運回」(공사 3-39) 라는 내용처럼 어떤 지역이나 인간생활의 장속에서 人界와 관련된다.(교운 1-44,63;교법 1-42)

또 지계 지하신이 천상 묘법을 인계에 전한다(교운1-9)는 것은 천상으로부터 지하에까지 신이 관계됨을 보여준다.

모든 道法을 합해서 쓰는 신도의 원리하에 세워지는 有道세계의 면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有道세계는 濟生醫世의 聖人の 道에 따라 好生の 德을 실천하는 데서 이를 수 있다.

원일이 자기 집에 상제를 모시고 성인의 도와 응패의 술을 말씀들었도다. 그것은 이러하였도다. “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교운 1장 16절)

이것은 眞法の 구현하에 君師의 위치가 한 갈래로 되는 원시반본 세계를 만들어 가능한 것이다.

이 세상에 전하여 오는 허례는 묵은 하늘이 그릇되게 꾸민 것이니 앞으로는 진법이 나오리라.(교법 3장 37절)

옛적에 神聖이 立極하여 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응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原始返本이 되어 君師位가 한갈래로 되리라.(교법 3장 26절)

따라서 구천상제는 政治와 教化가 갈라져 문제를 일으켰던 先天 雄霸의 術을 없애고 聖人の 道를 구현해 善을 기치로하는 사회상을 이루고자 하였다.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교법 2장 55절)

류찬명이 어느날 상제를 모시고 있을 때 상제로부터 堯舜의 도가 다시 나타나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하는도다. (교운 1장 46절)

구체적으로 後天 聖人時代를 만들고자 구천상제는 天下皆病의 형세속에서 선천 병폐의 응집체인 천하의 腫氣를 없애 三界를 匡救匡濟하는 天地公事를 九年間 행하였다.

상제께서 임인년 가을 어느날에 김 형렬에게 “풀을 한 곳에 쌓고 쇠꼬리 한개를 金溝郡龍岩里에서 구하여 오게 하고 또 술을 사오고 그 쌓아 놓은 풀에 불을 지피고 거기에 쇠꼬리를 두어 번 돌려내라”고 이르시고 다시 형렬에게 “태양을 보라”고 말씀하시니라. 형렬이 햇무리가 나타났음을 아뢰니라. 그말을 상제께서 들으시고 “이제 천하의 형세가 마치 종기를 앓음과 같으므로 내가 그 종기를 파하였노라” 하시고 형렬과 술을 드시었도다.(공사 1장 8절)

다음으로 神道の 기틀하에서 道의 내용이 어떠해야하는가를 「覺道文」에서 찾을 수 있다. 「覺道文」은 1925년에 발표된 것으로 無極道 創道와 그 脈을 같이하며 도의 본질을 眞理. 實像, 天然에서 찾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무릇 성인의 경전은 문장의 색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구하는 것이며, 진인의 마음은 진실을 구하는 것이고 겉꾸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물에서 구할 것은 천연을 구하는 것이요 조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마음을 밝혀 도에 이르렀으며 문달을 구하지 않았다.(夫聖人之經典 不求文章之色彩而求其眞理 眞人之心 求其實而不求外飾 求其物之事理 則求其天然而不求造作也 故 聖人 明心達道而不求聞達)(교운2장 33절 覺道文)

한편 無道는 父, 君, 師에대한 도리를忘하는 데서 일어나며 父에 대한 孝, 君에 대한 忠, 師에 대한 恩을 갖는 것이 病에 대한 藥이 된다. 原始返本의 때에 換父易祖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과 통한다.

또한 天下의 病에는 天下의 藥을 써야하며 天下의 生氣는 天下의 形勢를 아는 자가 받을 수 있고 인간을 포함한 萬有의 生死判斷이 全州 銅谷藥房에서 있게 된다. 天下를 먼저 생각하는 醫統은 聖스러운 職과 業이 된다.2)

2) 忘其父者 無道 忘其君者 無道 忘其師者 無道 有天下之病者 用天下之藥 厥病乃愈 聖父 聖子 元亨利貞 奉天地道術藥局 在全州銅谷 生死辦斷

다음으로 有道세계는 「대인과 대의는 병이 없다.(大仁大義 無病)」이라는 내용처럼 仁義와 관계가 있다.

孔子가 이상시하는 인간은 인간의 본질인 仁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仁의 개인적 현실을 修己라고 하고 사회적 실현을 安人이라고 했다.(李康洙.1996 7판:193)父子간에 仁함, 군신간의 의로움,賓主간에 질서있음 현자사이의 지혜로움,천도에 있어 성인의 관계는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며 자연적이거나 운명적인 것은 아니다. 孟子에 의하면 이것이 금수와 구별되는 점이다.인륜을 통찰하여 인의가 인륜의 근거임을 알아야한다.(金吉煥,1994 八刷: 108)

仁과 義는 새로이 「다른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을 仁이라하고 옳은데만 온전히하거나 그른데만 온전히 하지않는 것을 義라고 한다 (不受偏愛偏惡曰仁 不受全是全非曰義)(교법 3장 47절)」고 풀이된다. 그리고 大仁大義는 신명을 감통하는데 근원하는 것이므로 결국 大仁과 大義는 神道와 관련된다.

사람은 양이고 신은 음이다. 음과 양이 서로 상합한 연후에 변화의 도가 있다.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술은 모름지기 신명에게 있다. 신명을 느껴 통한 연후에 그 일의 법칙을 알면 大仁大義라 할 수 있다.일에 결단이 있는 연후에 변화의 도가 있다.봄, 여름, 가을, 겨울 중 가을은 의이며 의는 결단이다.(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不測變化之術 都在於神明 感通神明然後 事其事則謂之大仁大義也 事有決斷然後 有變化之道也 春夏秋冬秋爲義 義則決斷也)(제생 43절)

有道가 구현된 後天仙境은 無病世界이다. 후천선경은 宗旨의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하에 열리는 道通眞境과 관계되며 有道의 세계는 解冤을 통해 正陰正陽과 調化 그리고 相生이 구현될 때 이루어진다.

앞장에서 天下皆病의 양상은 총체적으로 볼 때 相克으로 인한 冤에서 기인했음을 보았다. 解冤은 선천의 문제속에서 재겁과 비겁에 싸인 우주를 구제하기위한 것으로 인류를 파멸에서 건지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聖身

知天下之勢者 有天下之生氣 暗天下之勢者 有天下之死氣 先天下之職 先天下之業 職者醫也 業者 統也 聖之職 聖之業(행록 5장 38절)

(공사 3장 4절)

해원의 필요성은 一人의 원이라 하더라도 천지의 기운을 막을 수 있다는 원의 심각성에서 찾을 수 있다. 상제의 권능으로 자연의 조화를 일으키는 일도 일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방해받음을 볼 수 있다.

상제께서 己酉년에 들어서 埋火 공사를 행하고 사십 팔일 되는 날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애원하기에 상제께서 공사에 전념하시는 중임으로 응하지 아니 하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서 원망하였도다. 이로부터 동남풍이 멈추므로 상제께서 깨닫고 곧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위안케 하시니라. 이때 상제께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 기운이 막힌다”고 말씀하셨도다.(공사3장 29절)

또 동화신명의 해원에서 볼 수 있듯이 역도에 걸려 후천에서의 정사가 어지러워질 수 있으므로 해원공사가 요구된다. 또한 신분적 구별과 명분을 없애고 典經에 좋은 시대로 표현되는 후천선경을 열기위해서 해원이 요청된다.(교법 1장 11절)

그런데 解冤은 神道を 근본으로 度數의 整理, 神明의 造化를 따라 진행된다. 해원을 이루기 위한 天地度數의 정리는 運이 잘 합쳐져 천지공사로 도수가 조정되고 정리돼 우주의 각 부분 및 원리에 있어서 道와 度 그리고 精과 氣가 돌아 太一의 聖哲에 귀합해 상생의 기틀이 세워진다.(교법 2장 42절 運合呪)

또한 解冤을 이루기위해 地氣를 統一해야하며 지기통일 공사는 다음과 같이 山河大地의 기운을 뽑아 모으는 度數調定이 이루어져 가능하다.(공사 3장 6,7절)

도수조정과 함께 해원을 이루기위해서는 신명 조화가 필요하다. 신명의 조화는 신계 명부의 일이 결정되면 인계일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내용처럼 인계 일까지 조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먼저 신과 인의 調化는 陰陽과 관련이 있고 선천 음양관계를 정음정양으로 바꾸는 것이 근간이 되며 선천 음양 상극으로 야기된 冤으로 삼계가 겁액에 빠졌으므로

천지공사속에서 해원공사를 통해 원과 척을 해소함으로써 정음정양의 균

등한 음양관계가 확립되어 調和를 이루게 된다.

2. 濟生

구천상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다스리는 治病을 행하였으며 萬國醫院 공사를 통해 除病을 구현하였다.

治病의 행사는 병의 원인을 상세히 찾아내 치유하는 구천상제의 權能에 기인한다.

상제께서 환자를 대하실 때에 환자의 가슴과 배속을 들여다 보시는 듯이 經絡과 臟腑를 낱낱이 가리키시며 이 곳은 어디이고 저 곳은 어디이며 어느 장부에서 병이 났고 또 누릿누릿하게 장부에 끼어 있는 것이 담이라 하시며 하나하나 환자가 알도록 가르쳐 주셨도다.(제생 1절)

민간층에서는 질병에서 풀려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방과 치료 두가지 방법은 각기 개인적인 것과 공동의 것으로 구분되면서 다시 주기적인 것과 수시적인 것으로 구분된다.(金泰坤,1994:298)

病을 치료하는 면에 있어, 古代 巫의 三職能은 司祭者, 醫巫, 豫言者인바 祭禮를 행하여 공물을 올리고 기도를 함으로써 惡神, 惡靈을 驅除하는 醫巫에 관한 기록이 있다. 샤아먼敎는 惡精을 驅逐하기위하여 藥물을 쓰지 않고 魔術을 쓴다. 질병같은 현상은 귀신의 작용에 의한 것이며 이곳을 치료하여 원상복구하려면 외부에서 침입한 神鬼를 내쫓아야한다. 이 퇴귀방법에 있어 藥물의 복용이나 의약에 의하지 않고 마술을 써서 신귀를 퇴거하는 방법은 고대무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醫巫의 기능이다.(任東權,1991:290)

구천상제는 각각의 환자들에게 맞는 醫法을 베풀어 병을 직접 치유하거나 代贖을 통해 여러 질병을 없애고자 하였다.

상제께서 처음으로 醫法을 花亭洞에서 베풀셨도다. 李京五는 화정동에 사는 사람이라. 어느날 그와 친분이 있는 박금곡이란 大院寺 주지가 경오의 신병을 아뢰고 심방을 상제께 간청하므로 상제께서 그의 병세를 보시니라. 왼쪽 발가락이 저리고 쭈시며 오후부터 새벽까지 다리가 부어 기등과 같이 되는지라. 그러나 그 부기가 아침에는 내렸다가 정오경에 원상대로 회복되다가도 오후에 붓기 시작하느니라. 이 증세가 삼사년 계

속되어 이제 촌보를 옮기지 못하고 앉은뱅이 노릇을 하게 되었고도다. 상제께서 진뻐하시기를 “진실로 괴상한 병세로다. 모든 일이 적은 일로부터 큰 일을 헤아리나니라. 내가 이 병으로 표준을 삼고 천하의 병을 다스리는 시험을 하리라.” 상제께서 손수 다리 끝까지 만지고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씻으라 이르시니라. 경오 명하신 대로 하니 곧 나오니라.(제생 2절)

이 무렵에 괴질이 淸州와 羅州에 창궐하여 인심이 흉흉한지라. 상제께서 “남북으로 마주 터지니 장차 무수한 생명이 잔멸하리로다”고 말씀하시고 글을 써서 괴질 신장에게 “胡不犯帝王將相之家 犯此無辜蒼生之家乎”라 칙령하시고 “내가 이것을 대속하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새 옷 다섯 벌을 급히 지어오게 하시니라. 가져온 옷으로 상제께서 설사하시면서 다섯번 갈아입고 “약한 자는 다 죽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이후부터 그 괴질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없어졌도다. (제생 23절)

『典經』 「濟生」編에 나타나는 治病의 다양한 예를 <병명(환자명)/치병재료/치병방법>에 맞춰 정리하면 도표(논문 뒷편 참조)와 같다.

治病을 통한 제생에서 중요한 것은 好生の 德의 실천이며 人間生命尊重의 精神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人尊에 따른 人間生命尊重의 정신은 開闢공사를 천시와 인사의 때를 맞춰 행한다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종도들은 천하가 無道하다고 하며 구천상제에게 개벽공사를 속히 행할 것을 간청한다.

상제께서 “내가 삼계 대권을 主宰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이라”고 종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도다. 그 때가 더딘 것에 종도들이 한탄하면서 하루 바삐 상제께서 개벽을 이룩하시기만 기다리는데도다.(권지 1장 21절)

그러나 구천상제는 기회와 때를 역설하여 호생의 덕에 의한 인간생명존중의 정신으로 개벽이 있어야 됨을 강조한다.

신원일이 개벽공사를 빨리 행하시기를 상제께 간청하니라. 상제께서 “인사는 기회가 있으며 천시는 때가 있으니 그 기회와 때를 기다릴 것이니 이제 기회와 천시를 억지로 쓰면 그것은 천하에 재화를 끼치게 될 것이며 억조의 생명을 억지로 앗아가는 일이 되리라. 어찌 차마 행할 바이

냐”고 말씀하셨으며 원일이 “방금 천하가 무도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속히 이를 잔멸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주시는 것이 옳을까 하나이다”고 말하면서 간청하니 상제께서 심히 괴로와 하셨도다.(공사 2장 24절)

그리고 공사를 통해 개혁이 때를 맞춰 人間生命尊重의 정신하에 있게 됨을 실례로 보여준다.

무신년 七월에 이르러 상제께서 원일을 이끄시고 부안 변산 遇金岩 아래에 있는 開岩寺에 가시니라. 그때 상제께서 원일에게 삶은 쇠머리 한 개와 술 한 병과 청수 한 그릇을 방안에 차리고 쇠머리를 청수 앞에 진설하게 하신 후에 원일을 그 앞에 꿇어앉히고 성냥 세 개비를 그 청수에 넣으시니라. 이때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고 홍수가 창일하는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이제 청수 한 동이에 성냥 한 갑을 넣으면 천지가 수국(水國)이 될지니라. 개혁이란 이렇게 쉬우니 그리 알지어다. 만일 이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 쓰면 재해만 끼칠 뿐이니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고 일러주시고 진설케 하신 것을 모두 거두니 곧 풍우가 그쳤도다. (공사 2장 27절)

제생 방법에 있어서는 개략적으로 呪文이나 글로 기운을 응하게하거나(제생 7,10,14,20절) 병의 轉移로 치병하는 것이 있다.(제생 6,24,31절)

또 음식(제생 22,35,39절),약재(37절), 心告(12절) 그리고 말씀(8절)이나 상제님의 방문(44절)등을 통해 치병이 이루어진다.(高南植.1990:308)

민간의료의 신앙 치료는 신성에 의존하고 있다.질병의 치료방법은 a.神이나 神秘的 존재에게 비는 방법 b 病原인 雜鬼나 神秘的 存在를 축출하는 방법.c.환자를 소거시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재생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모두 인간에 의한 물리,약물에 의한 치료가 아니고 인간이외의 신비력에 의해 병이 치료되는 것이라 믿고 있다. 질병의 예방 역시 신비력에 의한 것이어서,병을 앓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병이 인간의 몸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일상적인 현실계 밖의 비일상적 神聖쪽에서 조정된다고 믿는 것이다. (金泰坤.1994:310)

醫俗은 목적,형태,전승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고 목적에 따라 예방 醫俗과 치료 醫俗으로 나누어 진다.(李圭昌.1994:227) 『典經』의 제생 방법을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생방법의 분류>

1. 말씀이나 글로써 병을 다스리심

- 5절 '나를 믿고 근심을 놓으라' 는 말씀으로 산후복통이 가라앉음
- 7절 시천주를 일곱 번씩 외우라
- 8절 '나를 따르라' 는 말씀으로, 늙으신 후에 간질병을 회복
- 9절 '미수를 시켜 우암을 불러라' 로 빈사에서 구제
- 10절 체증을 시 한수로 다스리심
- 11절 '中央神將造化云吾命흠'
- 14절 대학우경 일장을 읽게 하심
- 20절 오행의 기운을 붙임. 육십사괘를 암송
- 23절 '胡不犯帝王將相之家 犯無辜蒼生之家乎'의 칙령으로 괴질을 고치심
- 27절 육간지를 외우게 하심
- 28절 '빨리 일어나' 라는 말씀으로 일어나지 못할 병을 고치심
- 30절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가 흐르느니라. 위로 뛰어 보라
- 32절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
- 33절 상제께서 진노, 견책하심
- 38절 살이 붙은 감주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
- 40절 '만수를 세 번 부름' 살기에서 구제
- 41절 '딸이 잘 되도록 축수하라' 고 부탁하심

2. 음식(재료)으로 병을 다스리심

- 2절 추녀 끝에 떨어지는 빗물
- 3절 상제의 모시두루마기, 술, 돈, 영양분 있는 음식
- 12절 '심고'로 초종지례를 면함
- 13절 죽 한그릇, 은행 한 개, 거울조각, 술 한상, 말씀
- 21절 쌀뜨물, 백낭, 가옥매도문서
- 22절 닭 한마리
- 25절 쇠고기, 참기름
- 26절 백탕29절 사물탕
- 35절 찹쌀 아홉되로 병을 다스리심
- 36절 매실
- 37절 사물탕
- 39절 닭국
- 42절 소시호탕

3. 병을 전이시켜 다스리심

- 6절 횃배알이 부인의 병을 남편에게 옮김
- 15절 환자의 중병을 노승에게 옮김
- 24절 토질을 개에게 옮겨 치병
- 31절 비별을 전선에 옮김

34절 안질을 대신 앓으심

4. 기 타 (직접적인 치병은 아니나 사람들간의 불화를 화해시켜 양자간의 상생을 이룬일)

16~19절

신원일이 상제를 공양하는 것을 그의 부친이 싫어하셨는데 어업을 하는 원일의 부친에게 풍채를 없애주는 대신 천냥을 공양하라는 약속하에 그렇게 하여 어업이 흥하게 하셨는데 부친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빛을 지게 되어 채권에 시달리는 것을 상제께서 불쌍히 여겨 채권자와 일기(日氣)로 내기를 하여 빛을 탕감하여 뉘우치게 하심

濟生편외에 다른 『典經』編에도 治病의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일예로 權智편에서는 청수를 떠놓고 기도 발원함으로서 황응종 아들의 병이 낫고(권지 2장 12절),병으로 정신이 아득할 때 받은 계시를 따라 구천상제에게 사배를 올리고 병이 쾌유된 경우도 보인다.(권지 2장 28절)

위와같은 治病의 단계를 넘어 九天上帝가 全州 銅谷에 藥房 설치는 우주를 치유하기 위한 醫世公事로 「元亨利貞 奉天地道術藥局 在全州銅谷 生死辨斷」이라는 내용에서 동곡약방이 단순히 병자를 구하는 차원이 아닌 천하개병의 형세속에서 天地道術을 써서 宇宙의 총체적인 病을 제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약방을 설치하신 후 “元亨利貞 奉天地道術藥局 在全州銅谷 生死判斷”이란 글귀를 쓰셔서 불사르셨도다. 약장은 종삼 횡오 도합 십 오 간으로 하고 가운데에 큰 간이 둘 아래로 큰 간이 하나이니라. 상제께서는 그 위 십 오 간 중의 가운데 간에 “丹朱受命”이라 쓰고 그 속에 목단피를 넣고 그 아래에 “烈風雷雨不迷”라고 횡서하고 또 칠성경을 백지에 종서하고 그 끝에 “禹步相催登陽明”이라 횡서하고 약장 위로부터 뒤로 밀 판까지 따라서 내려 붙이고 그 위에 “陽丁 六月二十日 陰丁 六月二十日”이라 쓰시니라. 궤안에 “入門遁甲”이라 쓰고 그 글자 위에 “舌門” 두 자를 낙인하신 후 그 글자 주위에는 二十四점을 홍색으로 찍고 약방에 通鑑,書傳 각 한질씩 비치하셨도다.(공사 2장 9절)

나아가 銅谷藥房의 설치는 종국적으로 萬國醫院의 설치를 통해 각종 원인으로 야기된 우주의 병을 모두 제거해 不老不死,不老長生の 세계를 구현하는 일로 연결돼 있다.

상제께서 하루는 구릿골에서 밤나무로 藥牌를 만들어 牌面에다 萬國醫院이라고 글자를 새겨 그 글자획에다 鏡面朱砂를 바르시고 이 약패를 院坪 길거리에 갖다 세우라고 公又에게 명하셨도다. 공우가 약패를 갖고 원평으로 가려고 하니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이 약패를 세울 때에 경관이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하려하느냐” 하시니 공우 여쭙길 “萬國醫院을 설치하고 죽은 자를 재생케 하며 눈먼자를 보게 하고 앓은뱅이도 걷게 하며 그밖에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리라고 하겠나이다”고 아뢰니 “네 말이 옳도다. 그대로 시행하라” 하시고 그 약패를 불사르셨도다.(공사 3장 35절)

除病은 心身수행으로 훗날 天降의 능력을 用事하는 인물들이 나타나 병을 고치는 면으로 전개된다.

상제께서 어느날 한가로히 공우와 함께 계시는데 이 때 공우가 옆에 계시는 상제께 “東學呪에 降을 받지 못하였나이다”고 여쭙니 “그것은 다 濟愚降이고 天降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도다. 또 “만일 천강을 받은 사람이면 병든 자를 한번만 만져도 낫게 할 것이며 또한 건너다 보기만 하여도 나올지니라. 天降은 뒤에 있나니 잘 닦으라”고 일러주셨도다.(교은 1장 58절)

除病된 세계의 구현은 후천선경의 정치,경제,사회등 다방면으로 三界間의 질서와 윤리도덕의 기강이 바로 세워진 모습으로의 精神開闢, 人間改造, 世界開闢이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예시 80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水, 火, 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예시 81절)

IV. 安의 意味

사강령에서 安의 의미는 중요하다. 安의 의미를 『大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說文에서 安은 靜으로 나온다. 安으로 향해가는 인간의 상태는 『大學』에서 찾을 수 있고 安의 의미는 『大學』의 經부분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그칠 곳을 안 후에 定함이 있고 정해진후 능히 고요하고 고요한 후 능히 安하고 안한 후에 능히 思慮하고 사려한 후에 능히 얻음이 있다.(知止以後有定 定以後能靜 靜以後能安 安以後能慮 慮以後能得)

여기에서 安은 知止- 能定- 能靜- 能安- 能慮- 能得에서 知止,能定,能靜의 상태를 토대로 能慮를 거쳐 能得의 최종 단계에 이르는 과정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朱子の 註는 다음과 같다.

그칠 곳을 알면 뜻이 정해진 방향이 있다. 고요함은 마음이 망령되지 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安은 처할 바에 편안히 함을 이른다.(知止 則志有定向 靜 謂心不妄動 安 謂所處而安)

또 이어지는 『大學』의 原文은

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마침과 시작이 있으니 먼저와 나중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깝다.(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이고 이에대한 朱子の 註는 大學의 위 두 原文을 종합해서

명덕은 本이고 신민은 末이다.知止는 처음이고 능득은 끝이다.본과 시는 먼저할 바이고 말과 종은 나중할 바이다.이것은 윗문장양절의 뜻을 맺은 것이다.(明德爲本 新民爲末 知止爲始 能得爲終 本始所先 末終所後 此結上文兩節之意)

라고 적어 知止와 能得을 각각 始終의 관계로 보아 먼저 할 것이 本과 始로서 知止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知止가 至善이 있는 곳에 뜻이 정해져 수행해나가는 것으로 설명되는 朱子 註를 볼 때 安은 處할 곳에 처해 안정된 상태이다.

『大學』에서 설명된 安의 의미를 참고로 할 때 安은 대순사상에서 삼계

질서를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삼계가 어떻게해서 존재하고 인간이 그 속에서 가져야될 심신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알 때 인간은 安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 마음과 몸이 安하다고 할 때 安이 어디에 始原하는 것인가를 찾는 것은 안심 안신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1. 九天上帝에 대한 一心

앞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신계와 밀접한 관련성하에 구천상제가 주재하는 神道の 틀속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 인간 心身の 安을 찾는 해답이 될 것이다. 먼저 구천상제가 밝힌 신과 인의 有機的 관계를 본 후 安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인계와 신계의 관계는 음양 관계로 삼계에 공존하는데(교운 2-42;陰陽經) 인계 일이 신계에까지 영향을 주고(교법 1-25,29;2-23) 인계 일의 결과는 신계에서 결정된 내용을 따라 인계에 구현된다.(교법 1-54,행록 3-8)

곧 신명계와 인간계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相推相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인간계의 정황은 그대로 신명계에 반영되며 신명계의 상황은 그대로 인간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신명계와 인간계 간의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나사못과 같은 관계, 즉 나선기제의 관계에 있어 상호 교통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세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혼란된 신명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盧吉明.1994 改正增補版 :429-430)

또한 천지는 인간과 有機的 관계하에 人間을 낳고 인간은 천지의 氣를 받아 智慧用力하며, 「天地 翹翹主張」이라는 내용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天地가 일정한 神과 소정의 원리하에 존재한다.

이밖에 神은 은혜를 갚으며(예시 22) 神界 道通神, 先靈神등은 人의 도통과 연관된다.(교운 1-33)

위에서 나타나듯 신계는 인간의 胞胎養生 浴帶冠旺 衰病死葬의 根源이고 始原이다. 이러한 신계와의 유기적 질서하에 인간은 삼계내에서 자신의 心身を 닦아 궁극적으로 도통의 경지에 갈 수 있다.

인간은 60년간의 선령신의 공덕으로 태어나고(교법 2장 36절), 인간의 죽음시 천상에 오르는 것은 정혼이 뭉쳐야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교법2장 22절)

해원시대에 신계 선령신은 인간의 일생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척신으로부터 보호해 수도하게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각 선령신들이 해원시대를 맞이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빼내어 덜미를 쳐 내세우나니 힘써 닦을지어다.(교법 2장 14절)

神과 人間관계는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매개로 작용하는 관계이다.

인간 마음에 응하는 神에 善神과 惡神이 있으니 매사에 善한 것을 스승삼고 惡한 것을 고치는 修心이 요구된다.(행3-44)

후천 삼계관계에서 선천과 다른 점은 인간이 人尊, 成事在人, 道通君子와 같은 위상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人尊은 천지보다 인간이 더 존귀하다는 것으로 천지인 삼계관계에서 인의 위상이 더 격상되는 시대가 열림을 보인 것이다.

또한 成事在人으로 선천에 天이 일을 이루던 상황에서 인간이 일을 이루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일을 이룬다는 면에서 天人관계에서 삼계 운영의 주도층이 天에서 人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상징하며 인계에서 출현할 道通君子를 頂點으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한편 人尊時代 道通의 淵源的 脈은 九天上帝이고 구천상제가 대두목을 정해 도통줄이 전해지고 道通은 九天上帝가 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先靈神, 儒佛仙 道通神등 삼계 중추적 신과 관련을 맺는다.(高南植.1997:457-458)

이것은 인계 도통군자가 신계 신의 영향하에 있는 것으로(교운1-33,34,41) 인간이 心身을 닦아 도통을 용사하는 차원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는 상등, 용사에 제한이 있는 중등 그리고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여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는 하등의 세등급이며(교운 1-34) 上·中·下의 차이는 마음과 신의 관계가 중심이다.(교법2-17)

天地의 中央으로서 인간 마음은 天地보다 크고 인간의 마음은

하늘이 쓰는 것과 땅이 쓰는 것, 그리고 사람이 쓰는 것이 모두 마음에서 통제된다. 마음은 귀신이 작용하는 중요 기관이고, 문호이며,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고, 문호를 들고나며, 도로를 오고 가는 신이 혹은 선하기도 하고, 혹은 악하기도 하니 선한 것은 스승으로 본받고, 악한 것은 고쳐라. 내 마음의 추기, 문호, 도로는 천지보다 더 크다.(天用地用人 統在於心 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 開閉樞機 出入門戶 往來道路 神 惑有善 惑有惡 善者 師之 惡者 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 大於天地)(행록3장 44절)

라는 내용처럼 天·地·人 三界의 神들을 통제하며 天·地·人·神에 있어 삼계의 주체적 중심으로 존재한다.

또한 마음에 있어 「布諭文」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心靈이고 심령을 찾는 것이 지극한 보배임을 강조한다.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 세상에 처하여 오직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명예이고 오직 영화이다. 명예라고 말하고 영화라고 말하여 사람이면 누구나 다 구하고자 하는 바이나 그것을 구하고자하나 어려운 까닭은 무엇인가? 모름지기 그 까닭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름길을 알지 못해서이니 지름길은 다른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곳은 무량하고 지극한 보배에 있다. 지극한 보배는 곧 나의 심령이다. 심령을 통한 즉 귀신과도 수작할 수 있고 만물과도 가히 질서를 갖출 수 있다.(曰人生處世惟何所欲 惟名惟榮 曰名曰榮 人所共欲而求之難得 是何故也 都是無他 未如捷徑 捷徑非他求也 吾之所求 有無量至寶 至寶即吾之心靈也 心靈通則鬼神可與酬酢 萬物可與俱序)(교운 2장 41절)

위에서 「心靈通則鬼神可與酬酢 萬物可與俱序」라는 내용은 인간 마음의 닦여진 경지에 따라 신과 통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나아가 인간은 魂과 魄으로 되어 있고 魂과 魄은 각각 하늘에서는 神,靈, 仙의 형태로 땅에서는 鬼로 변해 神界와 연계된다.

김송환이 사후 일을 여쭙어 물으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하셨도다.(교법 1장 50절)

신은 인간 마음을 매개로 인간에게 작용하고 천지는 인간을 낳아서 쓰며, 인간의 생사는 인간 몸의 精과 氣와 관련되어 있다.(행록 4장 57절)

한편 인간의 九靈三精은 天의 九星및 三台星과 관계되며 인간을 이루는 靈과 精의 근원이 별의 작용에 긴밀히 연계됨을 보여준다.

하늘에 탐랑,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좌보, 우필 9개의 별이 있다. 인간에게는 천생이라는 무령, 현주, 정중, 절단, 뇌뇌, 단원, 태령, 영동의 9령이 있다. 하늘에는 허정, 육순, 곡생 삼태가 있고, 인간에게는 태광, 상령, 유정 삼정이 있다.하늘과 인간은 하나가 된다. 별과 영혼은 떨어져 있지 않다. 서로 인간을따라서 내몸을 수호해 준다. 위에서는 비취주고 아래서는 응한다.(天有貪狼 巨文 祿存 文曲 廉貞 武曲 破軍 左輔 右弼 九星 人有 天生 巫鈴 玄珠 定中 子丹 雷雷 丹元 太靈 靈童 九靈 天有 虛精 六순 曲生 三台 人有 太光 爽靈 幽精 三精 天人爲一 星靈不二 相隨人間 守護吾身 上照下應)(교운2-42)

인간의 肉身の 五臟은 五行과 연관돼 있다.도교의학의 해부학이라고 할만한 것 중에 身神이 있다.이미 『太平經』에 五臟神이 있다는 것을 말하였으나 五臟神에 관해서는 肝,心,腎神에다가 膽神을 보탠 것이 『등진은결』, 『황정내경경』, 『사기섭생도』 등에 보인다.(都光淳.1990:132)

목은 간 가운데 푸른 기운이, 기가 좌편을 따라서 거듭하여 나와서 된 것이다. 화기운은 심장가운데 적색기운이, 그 기가 전면으로 따라나와 된 것이다. 금 기운은 폐 가운데 백색기운이, 기가 우측편으로 쫓아나와 거듭나와 된 것이다. 수는 심장가운데 있는 흑색기운이 등위로 가듭나와서 된 것이다. 토기운은 비장 가운데 있는 황색기운이 이마위로 거듭나와서 된 것이다.(木 肝中青氣 氣從左便 重出化爲 火 心中赤氣 氣從前面 重出化爲 金 肝中白氣 氣從右便 重出化爲 水 腎中黑氣 氣從背上 重出化爲 土 脾中黃氣 氣從額上 重出化爲)(교운 2장42절)

神과 밀접한 작용을 하는 마음은 인간 安心에 있어서도 신계와 긴밀히 연관됨은 자명하다.이러한 질서속에서 마음은 典經에서 다음의 몇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마음은 도통과 관계되는데 다음 전경 구절은 『書傳』 序文의 내용이 마음과 관계됨을 알 수 있다.

書傳 序文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大學 上章을 되풀이 읽으면 활연

관통한다(교법 2장 26절)

『書傳』 序文의 내용은 마음의 근원이 도에 따라야되며 그 마음의 법으로 「精一執中」과 「建中建極」을 강조하고 있다.

二帝三皇의 政治」는 「道」에 근본하고 「二帝三王의 도」는 「마음」에 근본을 두었으니 그 「마음」만 깨달으면, 그 「道」와 「政治」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리라. 왜 그런가 하면, 「精一執中」은 堯·舜·禹가 주고 받은 「心法」이요, 「建中 建極」은 商湯·周武가 서로 전한 「心法」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德」이니, 「仁」이니, 「敬」이니, 「誠」이니 하는 것은 말은 비록 다르지만 실상 그 이치는 하나이니, 그것은 모두 이 마음의 묘한 바탕을 밝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天을 말함에 있어서는 그 마음의 유래한 바를 엄숙하게 함이요, 民을 말함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베푸는 대상에 대해서 삼가게 함이니(二帝三王之治本於道 二帝三王之道 本於心 得其心 則道與治 固可得而言矣 何者 精一執中 堯舜禹相授之心法也. 建中建極 商湯周武相傳之心法也 曰德 曰仁 曰敬 曰誠 言雖 殊而理則一 無非所以明此心之妙也. 至於言天則嚴其心之所自出 言民則謹其心之所由施)

大學 上章의 내용은 대인이되기위해서는 明明德,新民,至於至善과 誠意 正心の 마음가짐으로부터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로 나아가는 일련의 생활자세를 밝히고 있다.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至於至善 知止以後有定 定以後能靜 靜以後能安 安以後能慮 慮以後能得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卽近道矣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治其志 致之在格物 (중략) 其所厚者 薄 其所薄者 厚未之有也

이상에서 신계와 인계, 신과 인간은 神道を 根源으로 하는 有機的 關係하에 공존하고 인간의 마음과 몸도 신계 신들과 긴밀한 차원임을 보았다. 이것은 안심과 안신의 본질과 방향성이 신계와 혈맥과 신경이 이어져 合德 調化 相生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위와같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주목되는 면은 「大大細細 天地鬼神垂察」의 내용처럼 신명이 인간의 罪에 대해 罰을, 善에 대해 福을 주는 人間 倫理道德의 판단자로 위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이 신에 대해

가져야될 자세가 나타나고 그것은 윤리도덕을 생활화해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교법 1-29)

신명 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닥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교법 3-5)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교법 3-24)

신과 인의 유기적 관계속에 종국적으로 神이 인간의 편벽,사곡등의 죄를 심판하는 윤리도덕의 판단자로 설명되며 신도의 질서속에서 인간 마음과 몸의 安은 神道를 따르는 수행과 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전지전능의 권능과 최고의 신격을 가진 九天上帝를 중심으로 여러 높은 신들이 우주의 造化政府를 구성하고 그 정부 조직아래 백성에 해당하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여 신명계라는 영역을 구성하고 있고, 이 신명계는 항상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계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대순종학 교재 연구회, 1998:122)

九天上帝는 천지공사를 행할 때마다 모든 신명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천지의 모든 일을 논의하는 造化政府를 결성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의 造化政府란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신명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변되게 회의를 하고 결정하며, 그것을 집행하는 우주의 原動機關으로서 <통일신단>의 결성을 의미하며 모든 신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신의 권능으로 신명들을 불러 모았다.(盧吉明,1994 改正增補版 :433)

위 내용은 神道の 主宰者이고 三界大權의 主宰者이며 開闢長이 九天上帝임을 밝히고 있다.따라서 인간 心身の 安은 九天上帝에 대한 安住에서 얻을 수 있다.

九天上帝가 三界大權으로 觀鑑萬天하는 원리가 神道이므로 결국 安의 始

原은 구천상제에 대한 誠敬信으로 歸一된다.

九天上帝는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교법 2장 7절)고 하였으며 一心을 강조하여 一心을 가지는 자는 서쪽에서도 찾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眞法の 주재자로서의 구천상제에 대한 一心이 삼계에서 인간 안심의 근원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간 福祿壽命의 시작이 구천상제에 대한 一心에서 기인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말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 지체없이 베풀어주리라. (교법 2장 4절)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말라.(교법 2장 5절)

一心의 힘은 최익현의 일화를 통해 강조되기도 한다.

상제께서 崔益鉉이 순창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라사대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林樂安은 죽고 崔勉菴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 하셨도다.(교법 3장 20절)

또 信條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수도의 요점을 담고 있는 대순진리회 요람에서도 『수도는 心身を 沈潛推密하여 大越 上帝의 永侍의 정신을 丹田에 鍊磨하여 靈通의 統一을 목적으로 恭敬하고 精誠을 다하는 一念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않고 至誠으로 奉祝하여야 한다.』라고 적어 信條의 시작이 신앙의 대상인 구천상제에 대한 安住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天倫에의 歸着

安은 有道로서 존재하는 三界 질서를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삼계가

어떻게해서 존재하고 인간이 그 속에서 가져야될 心身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알 때 인간은 安할 수 있다. 곧 安은 신도의 원리하에서 있게 되는 것으로 신이 인간의 윤리도덕을 판단해 벌과 복을 준다는 점을 볼 때 인간 윤리 도덕의 근본에 서서 늘 그것을 인지해 언동처사하는데서 얻을 수 있다. 이점은 본연의 양심, 도리, 예법등을 강조한 安心과 安身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나타난다.

安心: 사람의 행동 기능을 주관함은 마음이니 偏僻됨이 없고 私邪됨이 없이 眞實하고 純潔한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허무한 남의 꾀임에 움직이지 말고 당치 않는 허욕에 정신과 마음을 팔리지 말고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항상 마음을 안정케 한다는 의미이다.

安身: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모든 행동을 법례에 합당케 하며 도리에 알맞게 하고 의리와 예법에 맞지 않는 허영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大巡眞理會 要覽)

위의 安心과 安身에 대한 『대순지침』에서의 설명은 안심(安心)에 대해서 (가) “대병지약은 안심·안신이라” 하셨으니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나)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여 만기(萬機)를 통솔 이용한다. (다) 마음이 몸의 주로서 제병 제악(諸病諸惡)을 낚아 들이는 것이다. (라) 전경에 “사람의 마음은 신의 중요한 용사기관이요, 신이 출입하고 왕래하는 길이라(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導路也.” 하셨으니 마음의 발로(發露)에 사심(邪心)을 버리고 예법에 합당케 하는 것이 안심이라고 하였고 안신(安身)을 (가) 심안 신태(心安身泰)란 마음이 안정되어야 몸이 태평하다는 뜻이다. (나) 죄는 마음이 짓고 벌은 몸이 받는 것을 생각하여 자기가 자기를 욱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다) 전경에 “병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일어난다(病自己而發).”고 하셨으니 잘 새겨 두라.(라) 여동빈도 “몸의 병에는 약이 있으나 마음의 병은 고치기 어렵다(身病可藥 心病難醫).라 하였고 옛 사람들도 “모든 병이 마음에 따라 생긴다(諸病從心起)” 라 하였으니 마음이 내 몸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적고 있다.

위의 내용들은 인간 마음의 중요성과 그 마음이 良心에 따르는 人倫道德에 있어야됨을 강조하고 있다. 병으로부터의 예방이 人倫道德의 실천에 있

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개인의 倫理道德은 개개인 혹은 가정이나 세계만이 아니라 神道에 근원하는 三界 질서속에서 신계 신들과의 관계에 근거해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요체이다.

원시반본하는 때라 혈통줄이 바로잡혀 환부역조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교법 3장 42절)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인니라.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려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드려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교법 2장 36절)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가기 님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 (교운 1장 33절)

혈통줄의 정립은 인계 인간들의 本郷이 조상 선령신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점은 인간의 탄생과 도통의 면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주지의 사실로 이것은 앞에서 삼계 전체적인 질서의 확립이 신도에 근원되는 것으로 설명되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인륜도덕의 근원이 신계에 뿌리를 두고 이루어진 天倫에 접맥돼 있음을 보여준다. 인륜이란 인간이 타고난 천륜을 의미한다. 인륜이란 인간이 타고난 질서이며 동시에 하늘의 질서를 뜻한다. (金吉煥, 1994 八刷 : 106)

죄는 남의 천륜을 끊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나니 최익현이 高宗 부자의 천륜을 끊었으므로 죽어서 나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볼지이다. (교법 3장 21절)

내가 이제 아침에 객망리 주막 앞을 지날 때에 한 소부가 길가의 풀에 내린 이슬을 떨며 지나가기에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소부가 친정의 부음을 듣고 가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그 뒤를 한 노구가 지팡이를 짚고 가며 소부의 자취를 묻는도다. 내가 그 연유를 따져 물었더니 그 노구가

앞에 간 소부는 나의 며느리이나 가운이 불행하여 어제 밤에 자식을 잃었는데 며느리가 장사를 치루기 전에 오늘 새벽에 도망 갔나이다. 며느리는 저희끼리 좋아서 정한 작배이니라고 대답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대저 부모가 정하여 준 배필은 인연이요. 저희끼리 작배한 것은 천연이라. 천연을 무시하여 인도를 패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벽력으로써 응징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그 며느리는 벽력에 죽었노라고 전하는도다.(행록 3장 36절)

그리고 人世 대표적 사회구조인 君臣, 師弟, 父子관계의 모든 것이 天地鬼神의 수찰하에 존재한다는 내용은 人道가 神界 神들과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상제께서 어떤 공사를 행하셨을 때 所願人道 願君不君 願父不父 願師不師 有君無臣其君何立 有父無子其父何立 有師無學其師何立 大大細細 天地鬼神垂察의 글을 쓰시고 이것을 天地鬼神呪文이라 일컬으셨도다. (공사 3장 40절)

이에 따라 신명들이 각 가정을 다니며 기국시험을 하고 개인의 됄은 바를 따라 신명이 호위하는 일이 개인과 가정에 있게된다. 결국 소정의 신도의 질서하에 윤리 도덕의 근간도 세워지게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음양의 대대적 관계로 병립하는 사회 신분구조에서 君師父의 위치는 상대 계층의 존재하에 있게되는 것임을 밝혀 양자간의 相生之理를 강조하고 있다.

三綱五倫은 도덕의 근원으로 守則에 「삼강오륜은 음양합덕 만유조화 차례 도덕의 근원이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부부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며 존장을 경례로서 섬기고 수하를 애홀지도하고 친우간에 신의로서 할 것」(大巡眞理會 敎務部:1969:21)이라고 나타나는데 이 내용은 인간 心身이 安住해야될 綱倫이다.

삼강과 오륜에서 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의 양자는 上奉下率아래 君師父의 上이 존재하는 근거가 臣弟子의 下로 인한 것임을 알아 正陰正陽된 陰陽 合德의 관계이어야하고 이러한 틀속에서 윤리의 기강이 서게 된다.

또 오륜은 모든 인간의 상호관계를 존재방식으로써 설명하는 것이며 그 당위규범으로써 이해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친함의 관

계, 군신사이의 公義의 관계, 夫婦사이의 分別적 관계,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존경의 관계, 친구 사이의 믿음의 관계는 모두 하늘의 公義에 입각한 천륜이며 따라서 인륜으로서의 오륜은 그것이 당위규범이전의 존재질서인 것이다.(金吉煥,1994 八刷:107-108)

위에서 보았듯이 인계 인간들은 신계 조상 선령신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孝를 근간으로 하는 윤리성을 가져야됨을 볼수 있다.

상제께서 정남기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우가 부모에 대한 불경한 태도를 보시고 그의 죄를 뉘우치게 하시니라. 그 아우가 부친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불손하게 대답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 오려는데 문 앞에서 갑자기 우뚝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면서 연달아 소리만 지르니 가족들이 놀라 어찌 할 줄 모르는지라. 상제께서 조금 지나서 그의 아우를 돌아보시고 “어찌 그렇게 곤욕을 보느냐”고 물으시니 그제서야 그의 아우가 몸을 굽히고 정신을 차리는지라. 그 까닭을 가족들이 물으니 그의 아우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데 갑자기 정신이 아찔하더니 숨이 막혀 마음대로 통하지 못하였다 하니라.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그 때에 너는 숨이 막히고 답답하여 견디기 어려웠으리라” 하시며 크게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부친에게 불경한 태도를 취했을 때 부모의 가슴은 어떠하였겠느냐 너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지니라”고 일러주셨도다.(교법 1장 40절)

상제께서 張益模의 집에 가셨을 때 그가 자기 어린 아들을 지극히 귀여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교훈하시기를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도의로서 부모를 잘 공양하라” 하셨도다.(교법 1장 41절)

그리고 이러한 부모에 대한 윤리는 순의 예를 들어 부모의 오명을 벗기는 차원까지를 강조하고 있다.

세상에서 虞舜을 대효라 일렀으되 그 부친 고수의 이름을 벗기지 못하였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오.(교법 1장 44절)

舜의 부친인 瞽叟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자식을 죽이고자했던 惡父로 낙인 찍혀져있고 상대적으로 순은 악부를 거역하지 않은 효자로 되어 있다. 부친 고수의 악행은 자식 순을 상과 함께 모의해 죽이려는 극한 지경이었다.

고수가 다시 순을 죽일려고 하여 순으로 하여금 창고에 올라가 흙을 바

르게 하고는 고수가 아래에서 불을 놓아 창고를 불태우자 순은 마침내 두 개의 샷갓으로 스스로 몸을 가리우고, 내려와서 죽지않게 되었으며 그후 또 순으로 하여금 우물을 파게 하니 순은 우물을 파되 옆으로 나올 수 있는 숨은 구멍을 만들어 놓았는데 순이 이미 깊이 들어가자 고수는 상과 함께 흙을 내리부어 우물을 메우거늘 순은 숨겨 놓았던 구멍을 따라 나왔다.(瞽叟尙復欲殺之, 使舜上塗廩, 瞽叟從下縱火焚廩. 舜乃以兩笠自扞而下, 去, 得不死. 後瞽叟又使舜穿井, 舜穿井爲匿空旁出. 舜既入深, 瞽叟與象共下土實井, 舜從匿空出去)(「史記」)

이에 있어 구천상제는 진정한 효는 부친 瞽叟의 악행을 바꾸는 적극적인 孝윤리를 제시하고 그것이 자식의 진정한 도리임을 밝히고 있다.

夫婦간의 가정윤리에 있어서는 和氣를 토대로 하는 평화로운 가정상이 요구된다.

상제께서 박공우가 아내와 다투고 구릿골을 찾아왔기에 별안간 꾸짖으시기를 “나는 독하면 천하의 독을 다 가졌고 선하면 천하의 선을 다 가졌노라. 네가 어찌 내 앞에 있으면서 그런 참되지 못한 행위를 하느냐.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 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 일에 뜻하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 하셨도다.(교법 1장 42절)

위에서 가정 부부간의 불화를 神明이 늘 垂察한다는 것은 윤리도덕의 판단자로서의 신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정의 평화와 화목이 중요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함께 당시 사회에서 본처를 저버려서는 안 됨을 또한 밝히고 있다.

상제께서 김보경에게 글을 써주시면서 이르시기를 “너의 소실과 상대하여 소화하라.” 보경이 그후 성병에 걸려 부득히 본가로 돌아와 달포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응포에 살던 소실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느니라.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본처를 저버리지 말라.” 하시고 성병을 곧 낫게 하셨도다.(교법 1장 43절)

3. 相生의 실천

다음으로 安은 인간이 인륜도덕을 근간으로 적정하고 적절한 위치에서 相

生에 입각해 無冤無憾의 삶으로 도덕을 실현해 나갈 때 그속에서 無病世界가 가능하다. 인간이 安을 이루기위한 無冤無憾의 생활자세를 본다.

해원시대 원을 만들지 않는 바른 생활태도가 전경에 나타난다.해원에 앞서 원과 척을 짓지 않는 것이 해원시대에 강조되며 물샷틈 없는 도수에 따라 새로이 열리는 세상에서 마음,입,뜻에 의한 죄와 척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 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여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 뿔히듯 하리니 묵은 기운이 채워 있는 곳에 큰 운수를 감당키 어려운 까닭이니라. 부자의 집 마루와 방과 곡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 차있나니라. (교법 3장 4절)

척과 원은 밀접한 관계이므로 척을 짓지 않는 일이 결국 원을 맺지 않는 것이다. 척이 없는 무척과 무원의 생활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은 억울한 원함과 미움을 만들지 않아야됨을 보여준다.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함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교법 2장 44절)

또 남의 호의에대해 피해를 입고 부정적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한다.(교법 2장 46절)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곤경에 빠트려서도 않된다.

대장이 삼군을 통솔하여 적진에 쳐들어감이 장쾌하고 영귀하다 할지라도 인명을 사지에 물고 많은 살해를 입혔으므로 악척이 되어 앞을 막느니라.(예시 58절)

또한 부귀한 자와 지혜,강권을 가진 사람이 척에 걸림과 부자들은 재산만큼 살기가 있어 척에 걸림을 알 수 있다.(행록 4장 48절,교법 3장 4절)

일본과 조선과의 삼한으로인한 척은 일본의 조선침략으로 생긴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척은 삼계공사를 통해 相克之理가 相生之理로 바뀌어짐으로

써 가능케 된다.(제생43절)

구천상제는 원수를 사랑하면 덕이 됨을 말하고(교법 1장 56절) 종도 차경석, 김형렬, 박공우에게 타인이 설사 피해를 입힌 원수에게도 원심과 미움을 버리고 선과 자기 省察을 가르쳤다.

차경석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복수하려는 마음을 선으로 갚아야 하고³⁾ 박공우가 당한 고통이 전에 남에게 했던 잘못의 결과임을 알고 가해자를 은인으로 생각해야 됨을⁴⁾ 구천상제는 강조하였다.

또 하루는 경석에게 가라사대 “갑오년 겨울에 너의 집에서 삼인이 동맹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시니 그렇다고 대답하니라. 상제께서 “그 일어느 모해자가 밀고 하므로써 너의 부친이 해를 입었느냐”고 하시니 경석이 낙루하며 “그렇소이다”고 대답하니라. 또 가라사대 “너의 형제가 음해자에게 복수코자 함은 사람의 정으로는 당연한 일이나 너의 부친은 이것을 크게 근심하여 나에게 고하니 너희들은 마음을 돌리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 하시니라. 경석이 세 아우와 함께 옆방에 모여 서로 원심을 풀기로 정하고 상제께 고하니 상제께서 “그러면 뜰밑에 짚을 펴고 청수 한 동이를 떠다 놓은 후 그 청수를 향하여 너의 부친을 대한 듯이 마음을 돌렸음을 고백하라” 하시니 경석의 네 형제가 명을 좇아 행하는데 갑자기 설움이 복바쳐 방성대곡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너의 부친은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을 괴로와하니 그만 울음을 그치라” 이르시니라. 그후에 “千古春秋 阿房宮 萬方日月 銅雀臺”란 글을 써서 벽에 붙이시며 경석으로 하여금 항상 마음에 두게 하셨도다.(교법 3장 15절)

상제께서 川原장에서 예수교 사람과 다투다가 큰 돌에 맞아 가슴뼈가 상하여 수십일 동안 치료를 받으며 크게 고통하는 공우를 보시고 가라사대 “너도 전에 남의 가슴을 쳐서 사경에 이르게 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생각하여 뉘우치라. 또 네가 완쾌된 후에 가해자를 찾아가 죽이려고 생각하나 네가 전에 상해한 자가 이제 너에게 상해를 입힌 측에 붙어 갚는 것이니 오히려 그만하기 다행이라. 내 마음을 스스로 잘 풀어가해자를 은인과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 곧 나오리라.” 공우가 크게 감복하여 가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후일에 만나면 반드시 잘 대접할 것을 생각하니라. 수일 후에 천원 예수교회에 열두 고을 목사가 모여

3)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교법 1장 34절)

4)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교법 1장 56절)

서 대 전도회를 연다는 말이 들려 상제께서 가라사대 “네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하여 열 두 고을 목사가 움직였노라” 하시니라. 그후에 상처가 완전히 나았도다.(교법 3장 12절)

김형렬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버리고 자신을 먼저 돌아봐 허물을 고쳐야됨을 구천상제께서는 밝혔다.

김형렬이 출타하였다가 집에 예수교 신자 金重九가 술이 만취되어 김형렬을 붙들고 혹독하게 능욕하는지라. 형렬이 심한 곤욕을 겪고 돌아와서 상제께 사실을 아뢰니 상제께서 형렬에게 “청수으로 인해서 사경에 헤매었다고 하느니라. 이 소식을 형렬로부터 들으시고 상제께서 다시 그에게 충고하시기를 “금후에는 그런 일이 있거던 상대방을 원망하기에 앞서 먼저 네 몸을 살피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만일 허물이 네게 있을 때에는 그 허물이 다 풀릴 것이오 허물이 네게 없을 때에는 그 독기가 본처로 돌아가리라” 하셨도다.(교법 2장 28절)

다음으로 해원시대에는 德을 실천하고 경위에 맞게 처신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교법 2장 20절) 개인적으로 해원시대에는 잠재해 왔던 마겁들이 나타나 일을 야기시키는 시대이므로 마를 풀어없애는 解魔의 원리로 생활해야 된다.(교법 2장 15절)

無冤無憾의 세계는 天地公事에 따라 도수조정속에 相生의 道에 의한 後天仙境으로 나타난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예시 80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水, 火, 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예시 81절)

冤과 恨을 낳았던 相克으로 인한 시기 질투 전쟁이 없어지고 萬國和平의 天下一家가 되어 和權으로 정치하는 국가상을 볼 수 있다.우주와 세계, 인간

과 신의 모든 영역이 祥瑞로움으로 가득찬 無冤無憾의 地上仙境이 해원공사로 열린 道通眞境이다.

V. 結 語

本考는 신조 중 사강령의 安心 安身을 고찰한 것이다. 안심 안신은 신앙에 있어 마음과 몸을 간직하는 내용을 밝힌 것이다. 이와함께 안심 안신은 大病의 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천하가 병이든 天下皆病의 형세는 無道에 기인한 것으로 無道는 선천시대 삼계에 존재해온 상극과 원한으로 야기된 각종 병폐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이 병은 음양 不均衡 과 神人の 不調和로 파생된 人界의 無忠 無孝 無烈의 윤리도덕의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천하의 병을 치유하기위한 길은 도를 찾아세워나가는 有道의 확립에서 찾을 수 있다. 有道는 판이 넓어진 후천에서 모든 도법을 합해 쓰는 神道를 근간으로 얻어질 수 있다. 신도의 기틀아래 鬼神과 함께 행사된 天地公事로 삼계에 세워진 질서가 有道의 확립을 이루게된다.

九天上帝는 眞法の 출현으로 原始返本을 따라 聖人の 道, 君師 統一등 道法이 다시 확립되는 有道세상을 밝히고 好生の 德과 相生之道에 의한 化民靖世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는 일단의 공사로 인간생명존중에 의한 각종의 治病, 숭고한 인류애의 실천인 병의 代贖이 『典經』에 나타난다.

대순사상에서 마음은 神과의 매개기관으로 천지인 삼계의 중앙에 위치해 만사를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신도의 일단을 이루는 것이다. 인간의 육신도 九靈三精등이 天界 星宿와 관련되며 先靈神의 공력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 심신의 본질은 안심 안신에 있어 安의 의미와 방향성을 결정짓는 단서가 된다. 여기에서 앞에서 유도확립의 새 도법인 神道에 맞추어 볼 때 유도를 세우는 천지공사의 주재자인 구천상제에 대한 一心의 견지가 인간 마음과 몸의 安을 결정짓는 획을 긋는다.

또 인간이 天地, 先靈神등과 따로 존재할 수 없는 有機的 관계에서 天倫

에 연계되는 忠孝烈등 국가, 가정, 학교 人倫의 내용이 心身の 安에 대한 歸着點을 결정짓는 일단이 된다.

천륜, 인륜의 확립과함께 憾과 冤恨이 없는 道通眞境의 後天仙境은 개인이 無冤無憾의 相生의 道와 好生の 德으로 마음과 몸을 다스려가는 도덕성에서 安할 수 있음이 나타난다.

【참고문헌】

- 『大學 中庸』 서울: 보경문화사
- 『書傳』 서울: 보경문화사
- 『史記』 中華民國: 宏業書局有限公司
- 高南植(1990), 「濟生에 대한 一考察」, 『大巡會報合本輯』 제1집, 大巡眞理會 敎務部
- 高南植(1992), 「先天現實과 天地公事論」, 『大巡論集』 제1집, 大巡眞理會 敎務部
- 高南植(1997), 「典經에 나타난 神人調化」, 『大巡思想論叢』 제3집, 大巡思想學術院
- 高南植(1998), 「先後天 交替와 天地公事」, 『21세기와 大巡思想』 大巡思想學術院
- 金吉煥(1994 八刷), 『東洋倫理思想』 서울: 一志社
- 金泰坤(1994 3판), 『韓國民間信仰研究』 서울: 집문당
- 盧吉明(1994 改正增補版), 「神과 人間的 원한을 抹消한다」 『韓國思想의 深層』, 서울: 宇石
- 大巡眞理會 敎務部(1969), 『大巡眞理會 要覽』,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 大巡眞理會 敎務部(1974), 『典經』,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 大巡宗學敎材研究會(1998), 『大巡思想의 理解』, 京畿道 抱川: 大眞大學敎 出版部
- 『大學 中庸』 서울: 보경문화사
- 都光淳(1990), 『道交와 科學』 서울: 比峰出版社
- 商務印書館 編輯部(1989), 『辭源』, 台北: 遠流出版公司
- 任東權(1991), 『韓國民俗學 論考』 서울: 집문당
- 李圭昌(1994), 『全羅民俗論考』 서울: 집문당
- 諸橋轍次(1984),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 韓國東洋哲學會(1996년 7판),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 서울: 연세대 출판부

【도표 典經 제생편 治病사례】

절	병명	병의 증상	치병재료	치병방법	결과·교훈
2절	다릿병(이경오)	왼쪽 발가락이 저리고 쭈시며, 다리가 부으며, 앓은뱅이 노릇을 하게되는 신병	추녀 끝에 서 떨어지는 빗물	손수 다리 끝까지 만지고 빗물을 받아서 씻으라 이르심	회복, 처음으로 의법을 화정동에서 배우심
3절	병(상제의 부친)	상제부친의 병	상제의 모시두루마기, 술, 돈(영양분 있는 음식)	청도원 김송환의 집에서 잠-김갑철에게 두루마기를 찾음-상제의 모시두루마기를 부친에게 입혀 드리고 영양분 있는 음식을 대접	상제의 도력으로 부친이 회복
4절	병마(약재 쓰지 않고 해결)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상제의 신력	약재를 쓰지 않고 신력으로 건져주심	상제의 시력에 경복
5절	산후복통(형렬아내)	부인이 산후 복통으로 고생하는 승관이 있음	상제님의 대한 믿음과 말씀	'나를 믿고 근심을 놓으라'는 상제의 말씀을 믿고 근심을 놓음	복통과 천식의 괴로움에서 벗어남
6절	횃배앓이(장효순의 딸)	지병인 횃배앓이로 생명을 잃게 됨	상제의 신력	두 부부를 벽을 사이에 두고 등지고 서게 하여 부인의 병이 남편에게 옮김, 남편의 배를 만지심	회복
7절	지질(김윤근)	김윤근이 치질로 고생하다가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짐	시천주	시천주를 일곱 번 씹외우라 하심	완쾌
8절	간질(이도삼)	이도삼이 간질병이 있음	상제의 말씀	상제께서 '나를 따르라' 이르심	간질 기운이 사라짐
9절	급병으로 죽음(김사명의 아들)	중병으로 죽은 것을 한 나절이 넘도록 살리려함	말씀, 침, 마음	'미수를 시켜 우암을 불러라'고 외치시고 침을 흘려 아이의 입에 넣고 미음을 받아 마시게 함	항문으로 시추물을 쏟고 소리를 치며 깨어남, 걸어서 제 집으로 돌아감
10절	체증(김장여)	짐장여가 여러 해 동안 체증으로 고생	글(시한수)	배를 만지시며 시한수로써 다스리심-형렬로 하여금 글을 읽게 하심	체증으로부터 재생
11절	앓은뱅이(김모)	앓은뱅이	담뱃대, 글, 매	주문'중양신장 조화조화 운오명령흙'을 읽게 하심, 담뱃대를 사용시키고 매를 들어 빨리 걷게 하심	고마운 인사

절	병명	병의 증상	치병재료	치병방법	결과·교훈
12절	육순의 병 (박순녀의 모친)	육순의 병으로 도 를넘어 치상의 준 비를 하고 있음	심고(心告), 사물탕 한첩, 빛은 술	심고로 초종지례를 변 하게 하심, 땅을 파서 청약을 묻고 빛은 술을 모두 마시게 하심	희생
13절	신병(전순 일)	오랫동안 신병으로 고생	죽 한그릇, 은행 한 개, 거울조각, 술 한상, 말씀	'의원이 떠나니 병자는 문밖에 나와 전송하라' 는 상제의 말씀	몇 달 동안 입 맛을 잃고 고 생하다 완쾌
14절	문둥병(김 갑진)	문둥병으로 얼굴이 붓고 눈썹이 빠짐	대학우경일 장	형렬과 그 의 몇 사람 에게 대학우경일장을 읽게 하심	몸이 상쾌하며 부기가 내림
15절	난치병(김 성화)	난치병	함열 승림사 노승	함열 승림사 노스을 조 문하고 돌아오게 하시 어 환자의 증병을 노승 에게 옮김	노승은 죽고 성화는 치병
20절	오한 두통	각통으로 생긴 호 한, 두통	육십사과	육십사과를 암송하게 하심(오한의 기운을 응 하게 하심)	오한의 기운이 곧 약임
21절	용천혈(김 갑철 형수 발가락 종 창)	김갑철의 형수가 발가락의 종창으로 죽은 고생을 당함 (환부는 용천혈)	명부사자와 나의 사자와 내기-쌀뜨물, 백낭, 가옥배 도 문서	준상과 갑철이 번갈아 환자를 잠들지 못하게 하심	매도 문서를 태우고 약방으 로 쓰심
22절	폐병(김덕 찬의 아 들)	폐병	닭 한마리	환자의 허리를 밝고 아 픈 곳을 물어보심, 닭 한 마리를 삶아 먹이심	폐병이 나옴
23절	괴질	남북으로 괴질이 마주터지니 무수한 생명이 잔멸	상제의 글, 새옥 다섯 벌	'호불범 제왕 정상지가 범차 무고 창생지가 호'의 칙령으로 괴질을 없앴	약한 자는 다 죽을 것이니라 하고 이후 괴 질이 사라짐
24절	토질(정태 문)	토질도 신고	글, 개, 술값	글을 써서 침실 베개 위에 두게 하심	술값을 천천히 치르려고 하는 마음에 복통을 일으키니, 값으 리라 결심함
25절	얇은뱅이(평양집아 들)	얇은뱅이	쇠고기, 참기 름	아이에게 쇠고기와 참 기름을 먹이고 아침에 안고 오라고 하심	화가 난 평양 집이 아이를 때리므로 아이 가 도망치려고 일어섬

절	병명	병의 증상	치병재료	치병방법	결과:교훈
26절	다리부종(박순여)	왼쪽다리에 부종이 생겨 다리가 큰 기둥과 같이 부었음	백탕	상제께서 손수 부운 다리를 주물으시고 백탕 한 그릇을 마시게 하심	해원
27절	반신불수(차경석의 소실)	바늘에 손가락이 찢린 것이 팔까지 찌시다가 반신불수가 됨	육십간지, 술잔	상제께서 육십간지를 써서 주시고 그녀의 상한 손가락으로 한자씩 짚게 하시고 술잔을 들고 거닐게 하심	
28절	병(김경학의 8살된 아들)	병들어 일어나지 못함	말씀	'...일어나지 않으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빨리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심	예법으로 병을 고침
29절	병(김경학)		사물탕	상제께서 사물탕을 끓여 땅에 묻고 달빛을 우러러 보게 경학에게 이르심	
30절	다리 힘줄이 끊어짐(18세된 소년)	큰 돌에 맞아 다리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지면서 다리를 오그리지 못함과 몸이 자유롭지 못함	말씀	상제께서 '남의 눈에 눈물...위로 뛰어보라'고 말씀하심	인과응보
31절	신열, 해소(장성원의 아들)	밤만 되면 신열과 해소로 잠을 못잠	전선 두어 자	전선 두어자를 구하여 아이 머리위에 놓았다가 전주 밑에 버리라고 상제께서 이르심	제생
32절	창증(주막집 주인)	창증으로 고생	대학우경과증도들	상제께서 증도들에게 '대학지도...재지어지선'을 읽히심	인존시대에 는 인간을 쓰신다
33절	천포창(김낙범)	천포창으로 고통을 받음	상제의 진노견책하심-말씀	상제께서 김낙범에게 꾸지람을 내리심	진노, 견책하심 말씀
34절	안질(김낙범의 아들 영조)	핏발이 눈을 덮어 앞을 보지 못하는 안질	대속	상제께서 자신의 눈에 안질을 옮겨 놓으심	안질을 고침
35절	신병(문공신)	고부 옥에서 얻은 신병으로 집안 출입도 제대로 못함	참쌀 아홉 되	응중을 시켜 참쌀로 밥을 해 먹임	
36절	요통 (문공신의 어머니)	요통으로 고생	매실 한 냙중, 들보, 글	매실 한 냙중을 종이에 싸서 들보에 배달고 글을 써서 불사지르심	제생

절	병명	병의 증상	치병재료	치병방법	결과·교훈
37절	이질	이질	사물탕, 목과 세돈	이질로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사물탕에 목과 세돈을 넣어 약으로 주심	탕을 즐겨 쓰심
39절	설사(박공우)	심병	닭국	닭국을 먹음	진실한 마음
40절	병(김형렬의 딸)	설사병	휘파람, 세 번, 말쑤, 입기운	휘파람을 세 번...바람이 일어 하늘이 맑아짐	
41절	단독(고부인의 무친)	형렬의 딸이 병을 앓음	휘파람, 세 번, 말쑤, 입기운	상제께서 왕대뿌리에 왕대-시대-딸이 잘되도록 축수하라 하심	인과응보
42절	난산 (이직부의 처)	단독을 앓음	소지, 봉서		상제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덕화를 입을 수 있다.
	병으로 위독(이치안)		호시호탕 두첩.		정성스러운 사람은 상제님께서 왕래만 하셔도 치병됨
44절	얇은뱅이 (웃짓는 여인)	얇은뱅이	여인의 집 방문	방문외에 다른 치료를 하지 않으심	